끝나지 않은 고통…평화 향해 160km 행진

부산종교인평화회의, 7월 19일 평화순례 첫발

종교계, 피폭 · 해방 80년 맞아
부산시청 출발해 경남 합천까지
불교 · 원불교 등 6대 종단 연대
정산 스님 "전쟁 고통 기억해야"
25일까지 7일간 160km 행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부산시청에서 출발해 경남 합천까지 150km를 걸으며 원폭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피폭 80년, 해방 80년을 맞아 종교계가 원폭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도보 순례에 나섰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 스님)는 7월 19일 부산시청에서 출발해 경남 합천까지 160㎞를 걷는 '2025 생명존중 평화순례'를 진행했다. 순례에는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유교·천도교 등 6대 종교를 비롯해 일본 유키 스님, 미국 청년들, 한국 종교 청년들이 국제 연대로 동참한 가운데 7일간 진행됐다.

출발에 앞서 대표회장 정산 스님은 "전쟁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2세대, 3세대에게까지 이어진 고통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이번 순례는 고통을 기억하고, 잊힌 이들과 함께 걷겠다는 다짐의 발걸음"이라고 그 의미를 전했다.

박동신 주교(성공회 NCCB 공동회장)는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 순례가 우리 마음속 평화를 회복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정산 스님을 선두로 본격적인 순례를 시작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은 조용한 묵념과 염불 속에서 출발했으며, 각 종교 대표자들과 시민 참가자들은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품은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가운데에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번 평화순례는 단지 전쟁의 희생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2세대와 3세대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전 질환과 차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는 이들 있기 때문이다.

정산 스님은 "전쟁의 상처는 1세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며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2세대와 3세대의 존재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 이들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그 고통에 응답해야 할 때이며, 이번 순례는 침묵과 망각에 대한 참회이자,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순례단이 향한 합천은 원폭 피해자 1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다. 히로시마에 폭탄이 투하된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많은 생존자가 귀국 후 합천에 정착했다. 현재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에는 60여 명의 생존자가 머물고 있으며, 160위가 넘는 위패가 안치돼 있다.

순례단은 7월 25일 경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에 도착해 추모공연과 회향의식을 끝으로 평화순례를 마무리했다. 회향 현장에서는 원폭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열렸고, 종단 대표자들이 순례의 뜻을 되새기며 평화와 생명존중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민 소원등 정성으로 취약계층 지원

부산불교연합회, 집수리 위해 한울타리 봉사단에 자재 전달



부산연등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소원을 담아 연등을 달며 낸 성금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 나눔으로 이어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7월 19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569 부산연등회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연합회는 이날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위한 집수리 봉사단체 '한울타리 집수리 봉사단'에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올해 5월 열린 부산연등문화제 소원등 체험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 전액이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사무총장 석산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관계자들과 한울타리 봉사단의 권경일 회장, 오성호 사무팀장, 김태훈 현장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울타리 집수리 봉사단은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4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 집수리 봉사를 해왔다. 현업 종사자 10명 내외가 기술을 기부하고, 동아대 봉사동아리 '등불' 학생 20여 명이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현장에 함께한다.

정오 스님은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실천으로 이어진 것은 불교의 공덕 회향을 가장 아름답게 구현한 예"라며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봉사를 이어온 봉사단의 헌신이 있기에 이 나눔이 더욱 빛을 발한다"고 격려했다.

봉사단을 이끄는 권경일 회장은 "오랜 시간 이어온 봉사지만 때로는 자재나 인력, 체력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처럼 꼭 필요한 시기에 소중한 후원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린다. 시민들과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더욱 정성껏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심과 효심으로 왕실 원찰 의미 되새겨"

용주사, 정조대왕 225주기 기신재
성효 스님 "'효심이 불심'임 실천"

조계종 제2교구본사 효찰대본산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가 7월 22일 경내 호성전에서 '정조대왕 225주기 기신재(忌晨齋)'를 봉행하며 불심과 효심이 깃든 왕실 원찰의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용주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됐으나 병자호란 등 전란을 거치며 폐사됐다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 화산에 능을 이장하고 다시 창건한 사찰이다.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절 옆에 '호성전(護聖殿)'을 건립하고,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셔 매일 여섯 번의 재를 올릴 만큼 극진한 효심을 실천했다. 이후 호성전에는 정조대왕 본인과 혜경궁 홍씨(경의황후),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씨의 위패도 함께 봉안돼 오늘날까지도 왕실의 효 정신을 잇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전통음악 연주와 살풀이가 펼쳐진 데 이어 주지 성효 스님의 추모사, 주요 내빈의 격려사, 그리고 헌향·헌다와 불교의례에 따른 시식(施食)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용주사 본말사 스님들과 조승문 화성특례시 부시장, 배정수 시의장, 고민정·문정복·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회 한경대 총장, 조태균 용주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성효 스님은 추모사에서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또한 이 세상 모든 관계 안에서 효의 덕을 심고, 자비의 물을 길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속에 내재된 '효'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효심이 곧 불심'임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주사는 사도세자 추모재와 정조대왕 기신재를 별도로 봉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두 행사를 통합해 효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제로 격을 높일 예정이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범어사성보박물관, 예술로 즐기는 시원한 여름

8월 3일, 작가와의 만남
부채 만들기 체험도 마련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여름방학을 맞아 현대미술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예술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8월 3일 오후 1시, 기획특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慈大悲'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어사'가 성보박물관 1층 상설전시관 및 교육실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즐기다'의 일환으로 기획된 전시 연계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은 약 90분간 김정주·우징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현대미술의 감각을 체험하고, 예술의 메시지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시아노타입이라는 고전적 인화 기법을 활용해 '나만의 부채'를 제작하는 예술 체험이 포함돼 있어, 자연광과 재료의 우연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예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시아노타입은 햇빛에 감광되는 종이나 천에 특정 이미지를 인화하는 고전적 방식으로, 이번 체험에서는 이를 통해 부채를 직접 제작해 보는 활동이 진행된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완성되는 부채는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탄소중립과 환경의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으로 재해석된다.


김정주 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범어사 성보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5월 개막한 특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慈大悲'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범어사의 현판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예술성과 역사성을 조명하는 전시다.

관장 정오 스님은 "이번 전시와 프로그램은 범어사의 전통성과 현대 예술의 접점을 통해 깊은 감동과 성찰을 전하고자 마련됐다"며 "폭염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어사를 찾아 역사와 예술, 환경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종 물들인 '선명상' 열기…"일상에 쉼표를"

'2025 세종 선명상 축제'
7월 20일, 세 번째 열려

조계종 핵심 종책사업이자 국민행복 프로젝트인 '선명상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5 세종 선명상 축제'가 7월 한 달간 세종시에서 지역민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7월 20일, 세 번째 일요일을 맞아 세종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명상체험이 이어졌다.〈사진〉

이날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방송 리포터 출신이자 선명상 앰버서더인 조정민 강사의 진행으로 '아로마테라피 명상'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향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각자가 고른 아로마 오일로 나만의 룸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면서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상 습관을 배웠다. 이외에도 '심주 만들기', '핸드팬 소리명상'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동익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차장은 "명상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관리 도구"라며 "선명상이 세종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오는 7월 27일 '2025 세종 선명상 축제' 마지막 회차에는 선명상 운영을 총괄하는 금강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심주명상'이 강연과 명상체험을 겸해 진행될 예정이며, 김현경 앰버서더가 이끄는 '싱잉볼 명상'으로 4주간의 축제가 마무리된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통도사, 백중기도 입재…"욕망 내려놔야"

7월 20일 입재, 매주 법문 이어져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7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9년 백중(우란분절) 49일 천도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입재식 법사로는 반야암 감원 지안 스님이 법석에 올라, 조상 영가와 무연고 영령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백중기도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중은 내 안의 헛된 집착과 분별을 돌아보는 수행의 길"이라며 "마음속 욕망의 온도를 낮추고, 그 마음을 다시 나와 남을 위한 공덕으로 회향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설했다.

통도사 백중기도는 회향일인 오는 9월 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전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차례로 법문을 전하며, 마지막 회향 법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문을 설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경찰서 경승실, 경찰직원에게 보양식

7월 21일, 구내식당에 200인분



부산 사상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성문 스님)이 초복을 맞아 7월 21일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을 위한 영양식 공양을 마련했다.〈사진〉 이번 공양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경승실장 성문 스님은 "오늘 이 공양을 통해 우리 경찰관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승실은 경찰조직 안에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하는 불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서 직원들은 "요즘같은 폭염에 지치고 힘든데 영양가 있는 공양을 마련해 주는 경승실 덕분에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는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임영섭 사상경찰서장도 "경찰서 구성원들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보내 주시는 경승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한탑과 '효도DAY'

7월 19일, 500세대에 보양식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7월 19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초복맞이 '효도보양식DAY'를 개최했다.〈사진〉 나눔은 주식회사 한탑(회장 류원기)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복지관은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500세대를 대상으로 보양식과 국수세트, 빵, 수박, 바나나, 떡 등 여름철 원기 회복을 위한 풍성한 식품 꾸러미를 제공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200세대에는 음식이 식기 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포장해 직접 가정으로 배달했다.

서은해 관장은 "중복과 말복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